

# 남원 중장년 인생 2막 설계 돕는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재취업·창업·생애 설계 등  
참여자 40명 대상 교육 진행



남원시가 지난 13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 준비를 돕기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가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 준비를 돕기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가 주관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생애 설계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장년 경력개발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합리적 재무관리와 중장년 고용동향 등을 통해 취업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을 진행한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며 5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

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취업알선, 사회 참여기회 제공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박종만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재취업 교육을 통해 본인의 일 경험과 역량을 사장하지 않고

우리 사회 발전의 소중한 동력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중년들이 가진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도록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기업 친화 도시' 고창군

전북도 투자유치 우수기관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 예정지.

고창군이 전북자치도의 '2024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내 군부 차단체 중에서는 유일한 받아든 성적표다. 전북도는 매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노력도 ▲우수사례 등 5개 분야 9개 지표의 평가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투자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투자유치 우수기관을 선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기간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년간이다. 고창군은 이 기간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 소유권 이전과 용평리조트 토지 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이 지역 투자를 고민하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중견기업 4

곳의 컨소시엄을 통한 3000억원 규모 명사십리 투자협약으로 이어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군은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내 군 단위에서 고창군이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 청소년들, 소외 이웃과 '온기 나눔'

목도리 등 직접 만든 난방용품 복지센터 전달...십시일반 기부도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은 연말을 맞아 지난 11일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겨울용품과 기부금으로 마련한 난방용품을 노암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청소년들이 기부한 겨울용품은 수제목도리와 방향제, 귀마개 등으로 문화의집 소속 청소년들이 서로의 마음을 담아 한 뭉 한 뭉 정성들여 만든 물품이다. 또 난방용품으로 전달한 온열탄소매트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 십시일반 참여해 1년 동안 모은 25만원을 기부해 마련한 것이다. 서대현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나눔 행사는 올해 네 번째로, 청소년들이 꾸준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 아동·청소년이여, 네 꿈을 펼쳐라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정 550명에 학원비 등 지원

정읍시는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컴퓨터 등 학원비를 지원하는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꿈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교과목을 제외한 미술, 음악, 컴퓨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며, 총 550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둔 7세부터 19세까지의 저소득층(차상위 포함),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다. 선정된 아동과 청소년은 협력 학원을 통해 월 15만원 기준 학원비 중 90%인 13만 5000원을 지

원받으며, 학생은 10%인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학원비가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와 같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별별꿈 재능바우처 사업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소외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읍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당당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에 주택 임차비 지원

전북교육청, 1인 최대 5000만원...2029년까지 177억원 기금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순환보직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은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공무원이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대어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 소재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이전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한 교직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2년간 지원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관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지

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9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동태 의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5년 분예산안인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 부터 관사 입주 대기자 19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씩 총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총 176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전북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 북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완공

칠북로 일원 54명 수용...농촌 일손 부족·인권 문제 해법 제시



준공된 정읍시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읍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새 기숙사 조성을 완료해 오는 20일 준공식을 연다. 정읍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 운영으로 농촌 인력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북면 칠북로 일원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기숙사는 연면적 1441㎡, 지상 2층 규모로 26개의 객실과 공용 주방 및 식당,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54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고 단체생활을 통해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시는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월 사용료와

공과금을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조례 및 규칙을 통해 입주 기준과 감면 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는 등 입주자 관리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광주문화신협**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